

VD

제10차 정기총회 • 2005 협회 임원진 소개

special

정기총회

협회는 벤처 재도약 원년과 '벤처비전 2010' 선포에 발맞춰 회장직 업무의 분산과 역량의 조직화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우선 협회장에는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가 선임되었다. 당분간 장흥순 회장과 공동회장체제로 유지 후 조회장 단독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벤처비전 2010'을 앞장서서 지휘해 나갈 임원진은 회장단 22명과 이사 21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회장단에는 안철수연구소 안철수 대표, 한글과컴퓨터 백종진 대표와 케이블렉스 김태희 대표가 수석부회장으로 추대되었고,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 등 5명이 새로 선임, 회장단에 합류하였다. 이사진은 SNU프리스전 박희재 대표, 핸디소프트 김규동 대표 등 12명이 새로 선임되었다. 협회는 이번 활성화 대책에 발맞춘 인적·조직적 정비를 계기로 앞으로 '벤처비전 2010'의 실현과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안철수 대표
안철수연구소 대표



백종진 대표
한글과컴퓨터 대표



김태희 대표
케이블렉스 대표



남민우 대표
다산네트웍스 대표



권석형 대표
렉스진바이오텍 대표



박성찬 대표
다날 대표



배희숙 대표
이나루T&T 대표



신원호 대표
태화일렉트론 대표



양덕준 대표
라인콤 대표



연미정 대표
디엠플러스 대표



우성화 대표
티켓링크 대표



이성민 대표
엠텍비전 대표



임병진 대표
성진씨앤씨 대표



전하진 대표
인케코퍼레이션 대표



최선호 대표
토마토LSI 대표



최신규 대표
손오공 대표



최연규 대표
인프라밸리 대표



최희영 대표
NHN 대표



황기수 대표
코아로직 대표



황철주 대표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강문현 대표
밀로이트 하나회계법인 전문

감사

2005년 벤처기업협회 임원진

회장



조 현 정 비트컴퓨터 대표



장 흥 순 티보테크 대표

이사



권 석 철
하우리 대표



김 경 선
옴니텔 대표



김 규 동
핸디소프트 대표



김 대 연
원스테크넷 대표



김 덕 우
우리기술 대표



김 병 기
지오인터랙티브 대표



김 영 달
아이디스 대표



김 용 식
쿠도커뮤니케이션 대표



나 중 민
하늘사랑 대표



박 기 열
ID정보통신 대표



박 진 환
네오위즈 대표



박 희 재
SNU프리시전 대표



배 영 훈
니트젠 대표



서 진 원
하늘교육 대표



이 서 규
픽셀플러스 대표



이 철 상
VK 대표



임 윤 철
기술과가치 대표



정 쉰 준
솔리테크 대표



차 기 철
바이오스페이스 대표



최 충 연
신지소프트 대표



하 재 훈
아이레보 대표